오는 24~2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극단의 '추문패거리' 연습 모습. 〈광주시립극단 제공〉

저질 스캔들…세상이 미쳤어요

광주시립극단 풍자 코미디극 '추문패거리' 무대에

24~26일 문예회관 소극장

"저질 스캔들 메이커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네,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미쳐버렸다는 증겁니다."

1777년 영국에서 초연된 연극 '추문패거리'(The School For Scandal) 속 대사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이 풍자 코미디극 '추문패거리'를 무대에 올린다. 24일 오후 7시30분, 25~26일 오후 4시·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시립극단은 지난 2013년부터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숀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를 원작으로 한 '나의 살던 고향',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등 고전을 재해석해 무대에 올려왔다. 올해 선택한 작품은 18세기 극작가 겸 정치인 리처드 셰리든의 원작 '추문패거리'다.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규범에 일침을 가하고, 상류계급의 위선과 행태를 풍자하는 '풍속희극'으로 토마스 무어는 '작품 전체가 위트가 굴러다니는 황금의 땅과 같다'고 평했다.

연극은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습 불가한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그리고 있다. 특별한 주인공 없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각 인물들은 여러가지 사연으로 얽히면서 제 앞가림하는데 바쁘다.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 조셉, 낭비벽이 있지만 인정 많은 찰스는 형제다. 마리아는 찰스를 사랑하지만 후견인 피터 경은 찰스를 못마땅해 한다. 피터 경은 재혼한 젊은 티즐 부인의 사치벽 때문에 고민이다. 티즐 부인은 스니어웰 부인이 수장인 추문패거리에 가담해 조셉이 꾸며낸 음모에 말려든다. 이때 인도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찰스와 조셉의 부유한 삼촌 올리버가 돌아오고, 두 형제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한 작전을 꾸민다.

작품은 위트 있는 대사, 속도감과 리듬감 있는 극 전개가 특징이다. 극단 '작은 신화'를 이끌고 있는 최용훈씨가 연출을 맡아 '악의를 지닌 거짓 소문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현실'을 유쾌하게 파헤친다.

18세기 고전이지만 카더라 통신, SNS, 찌라시, 악성댓글을 통해 정체불명의 소문이 쏟아지는 소문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최씨는 아르코예술극장 초대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서울연극제 예술감독, 김상열 연극상, 동아연극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작품으로 '돐날', '김치국씨 환장하다', '황구도' 등이 있다.

배우들의 대사 연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작품으로 윤희철·고난영·유지영·이영환·한중곤·박영국·정경아·송정우·정은희·노희설씨 등 23명의 지역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최용훈 연출은 "극중 인물과 상황들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스러움을 우리 스스로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연극"이라며 "옛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공연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동문 연주회

22일 금호아트홀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동문 연주회가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2012년 '피아노앙상블 GUP(Gwangju University Piano)'을 결성하고 활동해온 피아노 전공 동문들의 네 번째 무대이다.

음악학원장, 개인교습, 전문 반주자 등으로 바쁘게 활동 중인 이들은 주말을 이용해 연주회를 준비했고 이번에 00학번에서 11학번까지 스무 명의 졸업생이 무대에 오른다.

특별히 이번 연주는 차이코프스키의 곡으로 레퍼토리를 꾸몄다. 발레음악으로 많이 알려진 '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을 두 대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전석 초대. 문의 062-670-26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래 묵혀둔 언어…잃은 것들과의 대화

천세진 첫 시집 '순간의 젤리' 펴내

"96년에 광주에 내려와 20년 만에 첫 시집을 내게 됐네요. 오래 밀쳐둔 숙제를 한 것처럼 기쁘고 설레지만 제대로 과제를 했는지 걱정도 되구요."

첫 시집 '순간의 젤리'(천년의 시작)를 펴낸 천 세진(51) 시인은 마음이 무겁다. 천 시인은 광주가 고향이 아니다. 속리산으로 유명한 충북 보은이 탯자리다. 광주에 둥지를 튼 것은 지난 96년 광주대 홍보실에 입사를 하면서다.

그러나 속리산 사나이가 무등산 사나이로 변해가는 동안 그가 추구하던 문학 세계도 조금씩 변해갔던 모양이다. 필자가 아는 한 그는 남도 출신보다 더 남도의 서정과 기질을 지닌 문인이다. 종종 그가 메일로 보내왔던 인문학 관련 글이나, 시평 등에선 남도 특유의 깊은 울림과 강직한 근기가 느껴지곤 했다.

시집이 출간됐다며 소식을 전해온 그는 "많이 부족하고 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을 낮췄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래 묵혀 토내낸 것들조차 잃은 것들과의 대화였다"고 덧붙였다.

그의 첫 시집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지난해 전업작가를 선언하고 스스로 설정한 유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스스로 하차하는 결기를 보여주었다.

"적게 쓰고 적게 소비하면 됩니다. 아내는 20년 간 전업주부였고 저는 작년부터 전업작가였으니, 우리집은 전업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웃음). 사실 대학 홍보실이라는 직장을 그만 둘 때는 건강 문제도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목까지 차오르는 절박감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사실 대학 홍보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잖이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다. 무엇보다 '밥벌이'를 위해 자신의 글과 언어는 철저하게 억누르고 객관화해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인의 성정을 타고난 그는 꽤 긴 시간 자신만의 글을 쓰고 다듬어 왔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2005년 계간 '애지'에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다. 문학을 좋아해 영문과에 진학했고 마침내 시인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시집 한권 내지 못하고 문단의 변방을 서성여야 했다.

그는 어떻게 시집을 내게 됐느냐는 물음에 "오롯이 2년여의 시간을 투자한 산물"이라며 "어둠의 날개들이 퍼덕이는 동굴을 빠져나가는 중"이라는 다소 시적인 말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나만의 글을 쓰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청탁 원고를 쓴다"며 나름의 글쓰기 방식을 넌지시 말했다.

이번 시집에는 미시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들과 달리, 거시적 세계와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파헤친 시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사실 시인이란 자신이 발 딛고 선 세계와 이 세계에서 펼쳐지는 부조리한 세태를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한 존재다. 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람들(독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천 시인의 시들은 거시적 세계와 현실 비판성으로 집약된다. 표제시 '순간의 젤리'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구조와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전문가마다 색깔이 다르다 했다 분홍 시스루 스커트, 바닐라 아이스크림, 얻어맞은 엉덩이 색깔이라 했다 누구하나 양보가 없었다(중략) 전문가마다 올챙이 시절부터 씹고, 뜯고, 핥고, 삼킨 분야가 있고 그 바닥에도 예법이 있어 상대의 영역을 넘보지 않는 것이 예의…"

시인은 도시 곳곳에서, 우리 삶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뒤틀림을 응시한다. 물론 기저에는 특유의 서정적 감성들이 드리워져 있다. 남도의 서정과 현실을 직시하는 서사적 상상력이 결합된 시들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이은봉 시인은 추천사에서 "그의 비판적 자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오늘의 사회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면서 "그는 시의 언어가 에둘러 말하기, 비틀어 말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고 평한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전곡 연주회'

현순이 교수 24일 금호아트홀서 마지막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현순이(광주대 교수·사진)씨는 지난해 10월 대장정에 나섰다. 베토벤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10곡을 모두 연주하는 '전곡 연주회'다.

세차례 연주회를 통해 베토벤 음악의 매력을 선보였던 현씨가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무대를 갖는다. 2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크로이처'와 베토벤이 피아니스트로 마지막 연주를 한 곡으로 그가 작곡에만 전념하게 한 계기가 된 '소나타 10번'이다.

현 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코네티컷 주립대학에서 연주박사과정을 마쳤으며 금호현악4중주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등으로 활동했다.

피아노 반주는 지난 세 번의 베토벤 프로젝트에서 호흡을 맞췄던 서현일 씨가 맡는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급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타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
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010-6670-9800 010-7384-7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6층 (45평) 올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융 5천)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융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융 1천6백만)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융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융 5천)
010-7384-7800

사무실/주거용 오피 임대
동구 수기동 사무실 임대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6층
45평 (약 4평 저온찜질방 있음)
시설완비 / 시설비 약 4천만 듬
/ 주차완비 / 즉시입주 가능
▶ 보 2천 월 60만
북구 중흥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
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법률 경매 ㈜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동구 금남로 (3층 상가 건물)
토 171평 건 250평
금남로 4가, 5가역 사이 1분거리
1층 (은행) 2층~3층 (사무실)
▶감정가 21억 → 최저가 9억5천

▣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 221평,건126평
임동사거리 코너 위치
주유소 2층 주택 있음
▶감정가 14억 → 최저가 9억8천

▣ 서구 금호동 (1층 식당)
토 69평 건 137평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 사거리 코너
식당 적극 추천 / 커피숍, 옷가게 추천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

▣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토 56평 건 75평
1층 (식당) 2층 (주택)
대단위 아파트 정문 / 금호초 정문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서구 쌍촌동 (토지)
농지 457평
운천역 3분 / 치평중 인근
도시지역 / 제 2종 일반 주거용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11억7천
010-6670-9800